

## 지울 스님 · 정부 극적 합의

### 환경영향조사 · 공사 일시중단 · 단식 중단

#### “생명 살리자” 여론 비등 속 이해찬 총리 직접 나서

정부는 3개월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기간 동안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지울 스님은 국민의 여망과 종교계지도자들의 권고, 국회 및 정부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히 단식을 끝내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정부와 지울 스님은 3일 저녁 7시부터 10시 15분까지 서초동 정도회관에서 총리실 남영주 민정수석 비서관과 법륜(정토회), 도법(실상사)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회담을 갖고 △환경영향조사 실시 △조사단 요구서 공사 일시중단 △지울 스님 단식중단에 합의했다.

정도회관에서 합의내용을 발표한 법륜 스님은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서 국회 결의안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으로 정부가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건기사 3면 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이강진 총리실 공보수석은 “지울 스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동의를 얻은 사항을 발표하겠다”며 “정부는 국회건설교통위원회와 ‘지울 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 촉구결의안’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권고를 깊이 검토한 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으로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환경영향공동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조사단이 공사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조사단의 요구에 최대한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 수석은 “환경영향조사단은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단을 꾸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은 시공사측과 지울 스님측이 추천한 각각 7명(전문가 각각 5명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3개월 동안 지하수, 지질, 생태계와 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울 스님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법륜 스님이 정부측과의 협상을 마친 후 합의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강진 총리실 공보수석이 3일 환경영향 공동조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수 기자

### 합의내용

- ① 양측은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정부는 석달간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지울 스님은 조속히 단식을 중단한다.



이강진 국무총리실 공보수석이 3일 환경영향 공동조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수 기자

## “환영...가치중심 사회 연 계기”

###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논평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월 3일 논평을 통해 “100일 동안의 단식을 마치기로 한 지울 스님의 결정을 2천만 불자와 더불어 환영한다”며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고뇌에 찬 노력과 결단에도 2천만 불자와 더불어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반목과 질서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개방주의에서 가치중심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울 스님께서도 하루빨리 기력을 회복해서 생명과 평화,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더 큰 수행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 총리실 “공사중단 아니다”

### 지울 스님측 “공사중단 의미다”

합의문 놓고 양측 해석에 차이

2월 3일 발표된 합의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도회 유수 스님은 “우리 측 발표가 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계 관계자들은 “이 부분은 추후 협상과정에서 또 다른 결론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합의는 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민약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단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대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 판결 결과를 따르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월 3일로 단식 100일째를 맞은 지울 스님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정부와 시민 종교 사회단체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3일 오전 7시 30분 정부를 향해 지하수맥에 관한 영향과 지질 안정성 여부에 대해 시민 종교단체와 함께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오후 2시경 이해찬 국무총리가 정도회관을 방문해 “국가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예의를 인정하기

지울 스님 “감사, 일어서겠다”

한편, 지울 스님은 “단식을 풀며”라는 글에서 “힘겨운 시간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여러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지울 스님은 2-3일간 정도회관에서 안정을 취한 뒤, 입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원우 · 박봉영 · 유철주 기자

### ‘아이벳’ 불교정보서비스 “맛 보세요”

아이벳 불교정보서비스가 1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아이벳 불교정보서비스는 전용 단말기(모델명 HP rw 6100)를 통해 무선 랜이나 CDMA를 이용하여 초고속 인터넷과 각종 불교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뉴스, 법문, 교양대학, 사이버법당, 엔터테인먼트, E-book, 커뮤니티, 불교문화속 등 8개 메뉴로 서비스되며 아이벳 홈페이지(http://ibud.buddhapia.com)에서 전용 브라우저 다운로드 안내 어디서나 불교를 만날 수 있다.

### ‘할’

입방아 조심하세요

말한마디에 정이 뚫어져라입니다

자신의 약점 알고있어도

막상남에게 들으면 아주 싫지요

그림 · 조태호

천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지울 스님 관련속보 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 ‘아이벳’으로 만나는 - 불자들의 유비쿼터스 세상

아이벳의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러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벳’

단행번의 기회!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벳(HP rw6100)최저가 특별보급 2가지

-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벳(HP rw6100)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벳(HP rw6100)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벳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아이벳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특별 보급 아이벳(입력형 세트 880,000원) 보급가 (사은품 1GB SD메모리카드 2장)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 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벳(484,000원)

http://ibud.buddhapia.com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벳(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